

프랑스

# 2023년 안정화 프로그램

[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2023. 6.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동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가 발표(2023.4.26.)한  
2023~2027년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

**연구책임자** |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공동연구원** | 이정인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프랑스 안정화 프로그램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Contents

1	경제 전망	1
2	재정 전망	5
3	주요 재정정책	8
4	재정 지속가능성	9
5	주요 과제	10
6	최고재정자문위원회 평가	11

## 요 약 SUMMARY

### » 프랑스 정부는 2023년 4월 26일에 2023~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보고서<sup>1)</sup>를 발표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유로지역 EU 회원국은 매년 4월에 EU 집행위원회에 경제·재정전망, 중기재정목표(MTO), 주요 재정정책 설명 등을 포함한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경제전망) 2024년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가계 소비의 증가로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이후에도 가계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각 1.7%, 2027년 1.8%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2023~2027년 재정을 정상화하고 채무 감축을 목표로 함
  -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우 낮게 유지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3년 56.0%에서 2027년 53.5%까지 낮아질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3~2027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2027년 3% 이하로 안정화될 전망
  -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20년 11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09.6%, 2027년 108.3%로 감소할 전망
- (재정정책) 프랑스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의 지출 통제 노력으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예외적인 지출의 증가에도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출 증가 억제에 위해 노력
  - 지출 통제 노력에도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

1) 프랑스 예산국, *Programme de stabilité (PSATB) 2023-2027*, 2023,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ogramme-de-stabilite-psatb-2023-2027>, 검색일자: 2023.5.2.

# 1 | 경제 전망

## 가 단기 전망(2023~2024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이후 2022년 지속적인 반등의 영향으로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경제 활동이 둔화
- 유럽 내 가스 공급 중단 우려가 있었으나, 에너지 절약과 공급원 다양화를 통해 위기를 넘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지속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023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0%로 전망

- 가계 소비는 2022년 4분기 현저히 감소한 후 2023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구매력 지원 조치로 인해 가계 소비는 0.5% 증가 전망
- 가계 투자는 자금조달 조건의 악화로 부진할 전망
- 2021년부터 시작된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 감면의 효과로 기업 투자는 확대될 전망
  -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VAE) 납부 대상 기업에 대해 납부 세액 절반 감액으로 72억유로 지원
  - 약 32,000개 기업의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TFPB)와 기업토지세(CFE) 감면으로 각각 17억 5천만유로와 15억유로 지원
  - 지역경제기여금(CET) 납부 대상 기업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 표 1 〉 2022~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제성장률	2.6	1.0	1.6	1.7	1.7	1.8
가계소비	2.7	0.2	1.9	1.9	1.9	1.9
일반정부소비	2.7	1.3	0.9	1.3	1.4	1.3
수입	9.1	3.1	3.0	3.5	3.3	3.3
수출	7.1	3.5	3.6	3.9	3.9	3.9
총고정자본형성	2.3	2.1	0.9	1.8	1.1	1.3
GDP디플레이터	3.0	5.4	2.7	1.8	1.6	1.6

출처: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2023, Table 1, p.17, 2023.4.26.

» 2024년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가계 소비의 증가로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항공 부문 등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부문의 점진적 회복이 성장에 기여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 투자는 다소 하락할 전망
-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기업 투자 또한 다소 하락할 전망

〈 참고 1 〉 구매력 지원 조치의 효과

» 에너지 가격은 2023년 소비자물가 바스켓의 8.6%를 차지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며, 이를 판매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음
- 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 가격 상승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가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2021년 10월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2022년 2월부터 전기 요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 해당 조치는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급등을 막는 주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2022년 가스 요금은 전년 대비 83%, 전기 요금은 31.5%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

» **물가상승률은 2023년 4.9%를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안정되어 2024년 2.6%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및 공산품 생산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2024년 에너지와 식품 및 공산품 가격의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어 물가상승률이 정상화될 전망

» **최근 몇 년 간의 개선 이후 2023년 노동시장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전망**

-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1년 크게 낮아진 이후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고용시장은 2023년 경제 활동 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둔화된 이후 2024년 경기 회복과 고용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다시 회복될 전망

» **가계 투자는 2023~2024년 다소 감소하고, 기업 투자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둔화될 전망**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 투자 증가율은 2023년 -2.7%, 2024년 -0.4%를 기록할 전망
- 기업 투자 증가율은 2023년 3.8%로 높게 나타난 이후 2024년엔 다소 둔화되어 1.4%를 기록할 전망
  - 경제 활동의 회복과 세부담 완화 노력의 지속, 그리고 디지털 및 친환경 부문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 투자는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가해 무역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관광 부문의 회복, 원자력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 수출 증가, 서비스 부문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수출은 2023년 3.5%, 2024년 3.6% 증가할 전망
- 증가 속도가 낮아지지만, 여전히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은 2023년 3.1%, 2024년 3.0% 증가할 전망

**나**

**중기 전망(2025~2027년)**

»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 각 1.7%를 기록하고 2027년에는 1.8%를 기록할 전망**

- 해당 기간 동안 가계 소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전망
  - 2025~2027년 연평균 23만 5천개의 비농업 부문 유급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7년 완전고용을 달성할 전망
- 2020~2022년 발생한 대외무역의 손실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전망
- 친환경 부문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

» **중기 전망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

-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특히 겨울철 수입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나 공급 부문의 긴장은 경제 활동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정학적 상황의 개선, 변화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응은 경제 활동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부채 비용을 증가시키는 명목 금리의 상승은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코로나19가 중기 전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제 반등은 원자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독일을 비롯한 직접적 무역 대상국의 경제 회복 등은 국제 무역에 긍정적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2 | 재정 전망

### »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와 2022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정지원이 확대 되어 재정수지가 악화

- 2021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 회복을 달성
  - 경제 회복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9.0%에서 2021년 6.5%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부문 긴장,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 경제 환경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시작
  - GDP 대비 재정적자는 4.7%로 다소 안정
- 2023년 높은 물가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4.9%로 2022년 대비 약간 상승할 전망

### » 2023~2027년 재정을 정상화하고 채무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

- 프랑스 정부는 모든 하위 부문에서의 공공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
  - 해당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수지가 가장 크게 개선될 전망(1.5%p)
    - ◆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축소된 이후 지출 통제 노력으로 재정수지 개선 기대
  - 지방정부의 지출 통제 노력 지속으로 지방공공행정 부문의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
  - 사회보장행정 부문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연금 개혁의 영향으로 계속 개선될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2027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2027년 3% 이하로 안정화될 전망
- 공공 재정의 회복은 친환경 부문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적인 투자와 함께 이뤄져야 함
-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20년 11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09.6%, 2027년 108.3%로 감소할 전망

〈 표 2 〉 프랑스 정부 부문별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Solde public au sens de Maastricht)	-9.0	-6.5	-4.7	-4.9	-4.4	-3.7	-3.2	-2.7
중앙정부 (État)	-7.8	-5.7	-5.6	-5.5	-4.7	-4.3	-4.2	-4.0
중앙행정기관 (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s centrales)	0.9	-0.1	0.5	0.0	-0.1	-0.1	-0.1	-0.1
지방공공행정 (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0.1	0.0	0.0	-0.1	-0.1	0.0	0.3	0.5
사회보장행정 (Administrations publiques de sécurité sociale)	-2.0	-0.7	0.3	0.7	0.6	0.8	0.8	0.9

출처: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2023, Table 5, p.34, 2023.4.26.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0년 60.5%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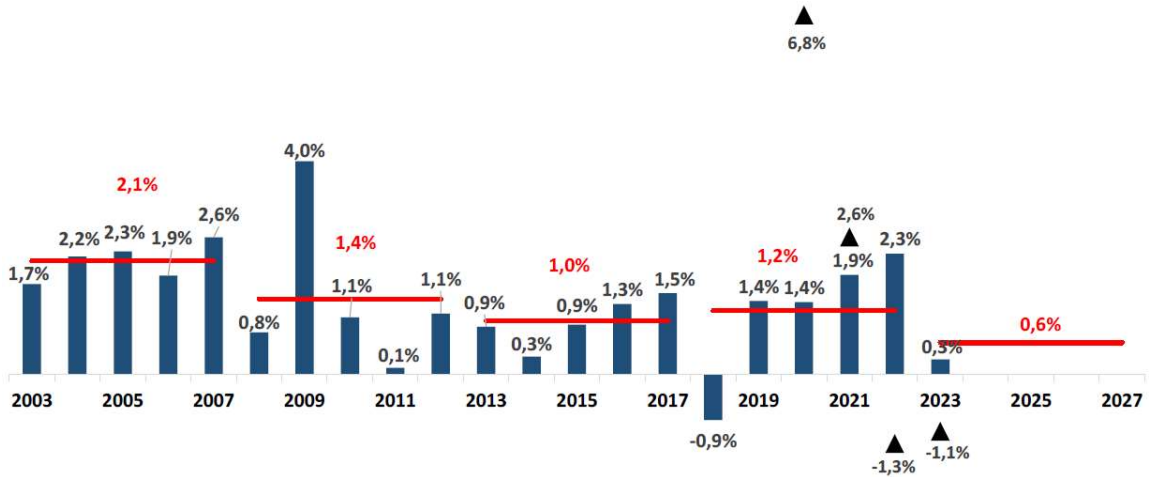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지원의 증가에도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반영되어 하락
-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우 낮게 유지하여,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53.5%로 낮출 전망

» 총조세부담률은 2022년 45.3%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안정화될 전망

- 법인세율 인하와 주택세 폐지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을 반영

〈 그림 1 〉 재정지출 증가율

(단위: %)



주: 막대그래프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와 프랑스 활성화 계획이 제외된 수치이고, ▲는 포함된 수치이며, 실선은 5개년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의미함. 2023년 이후는 전망치.

출처: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2023, Graph 1, p.36, 2023.4.26.

〈 표 3 〉 2019~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3.1	-9.0	-6.5	-4.7	-4.9	-4.4	-3.7	-3.2	-2.7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53.8	60.5	58.4	57.5	56.0	55.1	54.6	54.0	53.5
재정지출 증가율	1.9	6.8	2.6	-1.3	-1.1	0.0	0.7	0.5	0.7
총조세부담률	43.8	44.3	44.3	45.3	44.3	44.1	44.4	44.4	44.4
GDP대비 공공부채	97.4	114.6	112.9	111.6	109.6	109.5	109.4	109.2	108.3

출처: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3-2027*, 2023, Table 5, p.34, 2023.4.26.

## 3 | 주요 재정정책

### » 프랑스 정부는 모든 하위 부문에서의 지출 통제 노력으로 부채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감소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2년 -1.3%, 2023년 -1.1%를 기록할 전망
- 2023~202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0.6% 이하로 통제해야 함
  - 과거 5개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2007~2012년 1.4%, 2013~2017년 1.0%, 2018~2022년 1.2%였음

### » 2023년 프랑스 정부는 예외적인 지출 증가에도 재정지출 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

-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영향과 물가 상승에 직면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예외적인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 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
- 하지만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같은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선 지원을 유지

### » 재정지출의 질을 평가하는 메커니즘 강화

- 2023년 연간성과관리계획(PAP, projet annuels de performance)에 환경부문 성과 및 양성 평등과 관련한 지표가 추가됨
- 주요 예산 집계, 일반 국가 예산 및 녹색 예산의 미션(예산분류체계) 지출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강화

### »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의료 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보건 및 의료 관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투자를 지속
- 의료 부문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유지를 위한 의료 시스템 현대화가 필수

### »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단순화와 세부담 완화 조치 시행

-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세 개편과 주택세 폐지를 통해 가계 구매력을 높임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 Le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를 영구적인 기여금 감면으로 전환
-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하고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를 대폭 인하

## 4 | 재정 지속가능성

» 수십 년 동안 고령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금 수혜자 1명당 연금 기여자가 2002년에는 2.1명이었지만 2020년에 1.7명으로 감소했고, 2040년에는 1.5명까지 감소할 전망
  - 연금 수혜자 대비 기여자 비율의 감소는 고령화 관련 지출 조달 능력을 약화시킴
- 다만, 지난 10년 간 고령인구(55~64세)의 고용률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그리고 연금개혁으로 인해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게 나타남
  - 특히 2023년 연금개혁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재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의 우발부채(engagements contingents)는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

- 공공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관련한 경계 강화 필요
- 위험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위험에 대한 분석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5 | 주요 과제

»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가계 및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후 다음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 환경 위기 대응
  - 환경을 더욱 존중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 촉진을 위한 노력 지속
  - 산업 부문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 강화 등에 대한 투자 지속
  - 철도 부문 개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완전고용 달성 및 미래 역량 강화
  - 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실업보험 개혁을 통한 취업 장려
  - 교육 훈련 강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고용 상황 개선
- 에너지, 경제,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부문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 탄소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육 및 보건에 대한 투자와 개혁을 통해 평등한 사회 구축
  - 학교 교육 인프라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 국가 보건 시스템 개선과 의료 서비스 혁신 지원

## 6 | 최고재정자문위원회 평가

- » **최고재정자문위원회는 2023~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달성 가능한 수준이나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 평가<sup>2)</sup>**
  - 2023년 물가 안정은 정부의 전망보다 더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 전망
  - 2025~2027년 경제성장 전망 또한 다소 높게 설정되었다고 평가
    - 경제성장 전망이 추세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 전망보다 높게 설정됨
- » **2023~2027년 재정전망은 다소 높게 설정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
  - 연금보험 개혁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가 다소 과대평가되었다고 평가
  - 경제성장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더 높아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할 수 있음
  - 재정안정을 위해 더 큰 지출 통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2)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X PRÉVISIONS MACROÉCONOMIQUES ASSOCIÉES AU PROGRAMME DE STABILITÉ POUR LES ANNÉES 2023 À 2027", 2023.4.26.